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대한 주요국 자동차보험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19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사고율 감소,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 감소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2022년 이후 확대된 인플레이션, 부품비, 그리고 시간당 공임 상승은 2024년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흑자를 줄이고 있음
- 본고에서는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관측되는 자동차수리비 상승 현황과 보험회사 손익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요국 보험회사의 보험료 조정과 차량수리 관행 개선 등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자율적인 영국, 독일, 미국은 두 자릿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있었고 프랑스는 한 자릿수이지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손해율 상승으로 일부 보험회사가 위험인수를 줄이자 신속하게 보험료를 인상함
- 보험료 조정 이외에도 주요국은 수리비 절감을 위해 수리기간 단축 및 효율화, 교환보다는 수리 지향, 부품·정비업체 경쟁 촉진, 차량위험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재활용·중고부품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비업체의 수리·견적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사례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과 제도개선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위험인수를 하기 위한 양적·질적인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로 위험인수 역량(Capacity)을 지속하기 위함인 것으로, 수리 및 보상 관행 개선은 효율적인 손해액 관리를 통해 보험금의 타당성·형평성 등 퀄리티(Quality)를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수리비는 2030년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주요국과는 반대로 최근 보험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최근 자동차수리비 상승과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됨

-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부터 높아져 2023년에는 5.2%를 기록하였고 2025년 7월까지도 2.1%를 유지함
- 2019년과 2020년 보험료 인상으로 2021년에서 2023년 보험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부터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됨
-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4개 대형손해보험회사의 누적 손해율은 84.0%이고 7월 한 달간 손해율은 평균 92%로 손해율 상승세는 2025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표 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단위: %, 억 원)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보험영업이익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
2018	1.5	86.6	18.2	-7,237	1.8	-0.8
2019	0.4	92.9	17.8	-16,445	1.8	4.2
2020	0.5	85.7	16.5	-3,799	1.0	4.6
2021	2.5	81.5	16.3	3,981	2.1	0.4
2022	5.1	81.2	16.2	4,780	3.8	-1.0
2023	3.6	80.7	16.4	5,539	5.2	-2.0
2024	2.3	83.8	16.3	-97.0	2.4	-2.8
2025. 7월	2.1	84.0	15.5	-	2.1	-0.8

주: 1) 2025년 7월 자동차보험손해율은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대형 4개사 누계이고 2025년 7월 1달 국내 대형 4개사 손해율은 92%임

2) 자동차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임

자료: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수리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대해 대응한 주요국 자동차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첨단운전보조장치(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전기차 배터리 등 차량수리 기술이 복잡해지고 부품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리고 정비인력 부족으로 시간당 공임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¹⁾
- 본고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대한 보험료 조정(인상) 혹은 수리 및 보상 관행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자동차보험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1) Business Reserch Company, "Automotive Repair And Maintenance Global Market Report 2025"

2. 주요국 보험료 조정 현황

○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손해액 증가 및 합산비율 상승으로 이어짐

-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은 주요국에서 2022년, 2023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4, 2025년에도 6% 내외를 유지함²⁾
-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을 보여주는데 영국과 미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 이상을 기록하였고 독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 이상을 기록함
 - 공통적으로 시간당 공임 상승과 부품비 증가,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차량수리비가 증가함
 - 영국에서는 수리비가 높아짐에 따라 수리보다 차량을 폐차하는 전손(Total Loss)비율이 2021년 57.0%에서 2025년 66.5%로 높아졌고 사고처리대행사(Accident Management Company)의 렌트카와 과잉 수리, 전손가치 과다 산정이 손해액 증가에 기여함³⁾⁴⁾

〈표 2〉 주요국 자동차수리비와 자동차보험 경영 현황, 보험료 조정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미국	자동차수리비 증가율	3.9	8.2	11.6	6.1	5.6
	합산비율	101.5	112.2	104.9	95.3	96.0
	자동차보험료 조정률	3.8	7.9	17.4	17.8	16.2
영국	자동차수리비 증가율	3.2	7.1	7.8	6.8	6.3
	합산비율	96.6	109.5	108.5	115.0	107.0
	자동차보험료 조정률	-9.7	14.4	45.0	8.3	-12.8
독일	자동차수리비 증가율	4.5	6.4	8.4	6.1	5.6
	합산비율	94.8	101.2	111.3	107.4	-
	자동차보험료 조정률	-1.8	-1.4	2.3	18.0	16.0
프랑스	자동차수리비 증가율	2.7	5.9	8.0	5.5	3.2
	합산비율	99.3	100.4	98.7	100.3	-
	자동차보험료 조정률	0.6	2.5	3.6	5.6	6.0+

주: 1) 미국의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소비자물가상승률이고 미국의 합산비율은 개인용자동차보험 합산비율로 A.M. Best에서 인용함

2) 2025년 미국의 개인용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A.M. Best 전망치임

3) 영국은 개인용 자동차 평균보험료 상승률, 영국의 합산비율은 Ernst & Young Global Limited 자료이며 2025년 합산비율은 EY 전망치, 독일의 2021년부터 2023년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책임보험 기준이며 2024년과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FRB St. Louise, Insurance Institute Informat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 U.K.; Confused.com; 독일 보험산업 통계집 2024; France Assureurs 2024; 각국 보험협회

2) 영국에서 부품비는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중 35% 상승했고 부품공급 지연에 따른 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대차료 상승, 정비인력 유출 등이 차량수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Insights on Repair Costs & Total Losses: 2019-2025 Data Report

3) The Guardian(2024. 5. 11.), "It felt like a massive scam": the minor prangs to cars that lead to huge charges"

4) Auto Claim Assist Proprietary Claims Data, 2019-2025; 무과실 피해차량 보험 청구 건 31,299건을 분석한 결과임

- 합산비율이 100을 넘거나 전년 대비 상승하였을 때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2023년 영국은 45%, 미국은 2023년 17% 이상, 2024년 독일은 18%, 프랑스는 5% 이상 높아짐
 -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합산비율이 하락해도 자동차보험료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험영업수지가 개선되도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는 것으로 보임

3. 주요국 보험료 조정 체계

- 영국, 독일, 프랑스는 보험료 조정이 자유로운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Proposition 103으로 인한 사전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기본 요율(Base Premium)에 수리비, 비용 및 인플레이션 등 추세적 위험요인과 운전자 개인의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계약자 갱신시점에 조정하는데, 연간 계약이라는 특성과 시장 경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인의 보험료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움
 - 캘리포니아는 1989년 11월 Proposition 103 시행 이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가능함
- 감독기관의 역할은 보험료 조정 후 사후적으로 규제 기준이 충족한지를 검증하는 것임
 - 영국의 경우 2022년 1월 시행된 공정보험료 원칙(Fair Pricing Rule), 투명성 원칙, 취약계층(고령운전자와 저신용등급 소비자 등) 차별 금지 원칙 등이 지켜지는지를 검증함
 - 공정보험료 원칙은 기존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갱신 시 신규 고객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고 투명성 원칙은 고객에게 보험료 변동 내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원칙임
 - 독일의 보험계약법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료 산정과 변경을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 리스크 기반 감독을 수행함
 - 연방금융감독청은 필요시 요율산출 근거자료를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보험료가 특정 집단에 불합리하게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함
 - 그리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과소평가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지급여력 점검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영향을 미침
 - 프랑스는 ACPR(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사후 감독하며 소비자는 요율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또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음
 - 지급여력비율(Solvency II) 및 재무제표 보고를 통해 감독하는데,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요구자본이 늘어나고 Solvency II 비율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구조임
- 캘리포니아의 자동차보험료 규제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제된 보험료

인상분, 지속된 보험영업수지 악화, 보험회사의 신규계약 중단 선언 등으로 보험료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짐⁵⁾

-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험료 인상 심사에 최대 1년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보험회사와의 사전 협의(Pre-filing negotiation)를 통해 신속 승인하는 경향이 강해짐⁶⁾
 - 2024년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은 사전협의를 통해 요율조정을 신속하게 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Safeco는 특수차량, 오토바이, 비우수 운전자 자동차보험에 대한 신규 인수 및 갱신 중단을 발표하였고 스테이트 팜 등 다수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을 제한함⁷⁾

4. 차량수리 관행 개선과 차량위험 평가방식 개선

- 주요국은 수리비 절감을 위해 수리기간 단축 및 효율화, 교환보다는 수리(Durable Repair) 지향, 부품·정비업체 경쟁 촉진, 차량위험평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수리기간 단축 및 효율화를 위해 재활용·중고부품 활용 촉진 및 부품시장 경쟁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가 수리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품 공급망 회복과 대체 차량(Rental car)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워크플로우 등을 도입, 평균 수리기간(Cycle Time)을 2022년 60일 이상에서 2024년 30일로 단축하였고 독일 보험업계는 차량수리 방법을 체계화함⁸⁾
 - 독일은 2020년 11월 범퍼, 펜더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 예외 조항을 디자인법(DesignG §40a)에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랑스는 부품시장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독일과 유사하게 디자인 법을 개정하여 재활용 부품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The French law n° 2021-1104 of 22 August 2021)⁹⁾
- 교환보다는 수리 지향적 정비관행 개선은 정비업계의 경쟁도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수반함
 - 영국은 Right to Repair를 표방하면서 정비업계 경쟁이 촉진되었고, 프랑스는 가능한 경우 부품 교환 대신 수리(Repair over replace)를 권장하고 재생 부품 사용을 장려함
 - 독일은 차량데이터(센서, 배터리, 첨단운전보조시스템 정보 등)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비업계 경쟁을 촉진하고 수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책임을 강화함
 - 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 수리 청구 금액이 수리 접수 시 예상 견적을 15%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수리비 초과 시 사전 통보 요건 강화)

5) 앞의 <표 2>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닌 미국 전역에 걸친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이지만 캘리포니아 요율조정 프로세스를 기술한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요율 규제가 강한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6) PERR-Knight, "HOW TO NAVIGATE THE CALIFORNIA RATE FILING ENVIRONMENT"

7) <https://kaifpa.org/media-archives/detail?no=182>

8) Procurato(2024. 8. 19.), "Motor Insurance Cycle Times: A Constantly Evolving Measure"(<https://www.procurato.co.uk/post/motor-insurance-cycle-times-a-constantly-evolving-measure>)

9) <https://www.bdl-ip.com/en/2021-10-car-spare-parts-the-repair-clause-is-finally-adopted/>

-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리견적서 관련 규정을 강화(Write it Right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7월)하였고 차량분해 견적 규정을 2025년 7월 시행함
 - 정비업체는 고객에게 작업 승인 내역, 견적서, 수리 내역 및 부품 기록등을 문서화해 제공해야 하며 수리비 추정에 중고 및 재생 부품 등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California Insurance Code §758.5)
 - 차량분해 견적 규정은 충돌 수리 시 항목별, 부위별로 분해 견적서를 작성, 재조립 비용, 인건비 및 부품비, 최대 재조립 소요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함

〈표 3〉 주요국 자동차수리 관련 제도개선

구분	교환보다 수리: 부품 관련	수리비 견적 산정	정비관행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부품(Like Kind and Quality) 활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e It Right' 가이드라인 개정(2025년 7월)(California Insurance Code §7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해 견적 규정 개정(2025년 7월 시행, 캘리포니아 차량 정비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부품 재사용 가이드 정비 • 대체부품 사용 확대(디자인법 DesignG §40a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비용 사전 고지 • 수리비 청구 금액이 예상 견적의 15%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수리비 초과 시 사전 통보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데이터(센서, 배터리, 첨단운전 보조시스템 정보 등) 공개 범위 명확히 함 • 수리 견적 통지 및 배상책임 강화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수리기간(Cycle Time) 단축: 부품 공급망 회복과 대체차량(Rental car)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워크플로우 등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수리비 산정의 공정성(Fairness)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정비업체(Approved Repairer) 경쟁 촉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조항 도입: 재활용 부품 허용 및 부품시장 개방(The French law n° 2021-1104 of 22 August 2021) • 자동차폐기시장의 재사용 부품 생산 의무화(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ght to Repair: 제조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리용 부품·소프트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able Repair(수리 친화적 정책): 가능한 경우 부품 교환 대신 수리(Repair over replace)를 권장하고, 재생 부품 사용을 장려

○ 보상제도 개선과 차량 위험도 재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함

- 영국은 보험회사와 렌트카 업체 사이의 General Terms of Agreement(GTA)를 강화함¹⁰⁾
 - 시장 데이터를 이용한 렌트카 요율 점검, 보험회사와 렌트카 업체와의 분쟁 영역 명확화 등으로 렌트카 관련 손해액 관리 방안을 마련함
 - GTA는 보험회사와 렌트카 업체 간의 자율적 협약으로, 요율, 제출 서류, 대체 차량 사용 기간,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표준 역할을 함
- 영국과 독일은 자동차보험 차량등급 시스템(Vehicle Classification System)을 개선하여 차량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함
 - 영국은 보험협회와 태삼이 개발한 차량 위험등급 시스템(Vehicle Risk Rating System)은 차량의 성능, 안전

10) 자동차사고 피해자(특히 무과실 운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는 회사로 주로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 수리업체 및 렌트카 업체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장치와 수리 용이성, 도난 위험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에 반영함

- 독일은 차량 모델·지역·운전자 무사고 할인등급별 사고·손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매년 평가함

5. 요약 및 시사점

- 주요국은 자동차수리비 증가에서 비롯된 손해율 상승과 보험영업이익 적자에 대해 보상 및 차량수리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료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음
- 보상 및 수리 관행 개선은 자동차수리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데, 교환·수리 기준, 부품 기준, 전손(Total Loss)처리 기준,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재조정하고 있음
 - 기술발전, 자동차 및 부품가격, 수리 인력 부족 및 시간당 공임 상승과 이로 인한 수리비와 손해율 상승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은 기대손해액의 추세적 상승 전망과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음
- 주요국 사례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과 제도개선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위험 인수를 하기 위한 양적·질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임
 - 보험료 인상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로 위험인수 역량(Capacity)을 지속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고 수리 및 보상 관행 제도개선은 효율적인 손해액 관리를 통해 보험금의 타당성과 형평성 등 퀄리티(Quality)를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인수를 줄이거나 제한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인수 위축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다 2024년에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자동차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인 및 대물배상 손해액은 8% 내외 증가하였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기준으로 5.4% 감소함
 - 2024년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 2025년 7월까지 대형사 기준 손해율은 92%를 기록하였는데 대인배상 손해액이 감소하더라도 차량수리비 비중이 높아 차량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조정 압력은 누적될 수 있음